

從屬理論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批判

徐 寬 模

(서울大 社會大 博士過程)

<차 례>	
1. 머리말	2) 歷史觀의 問題
2. 從屬理論의 主要命題	3) 經濟理論上的 問題
3. 從屬理論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批判	4) 社會階級分析의 問題
1) 認識論上的 問題	5) 政治的 路線의 問題
	4. 結 論

1. 머 리 말

이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된 徒屬理論은 이른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부르조아 發展理論”과 동시에 “敎條的 마르크스주의의 不毛性”에 대한 反命題로서 제기되었다는 이론이다. 60년대 중반 이래로 서구에서, 이어서 “제 3 세계”에서 새로운 활력과 관심을 획득한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종속이론의 도전에 대하여 오래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았다. 종속이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70년대 초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속이론을 비판하고, 그와 투쟁하여 왔다.¹⁾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 내에 종속이론을 수용하려 하거나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적 종속이론”을 구성하려는 자들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그 대가로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종속이론은 어디까지나 투쟁해야 할 敵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종속이론가들 사이엔 이미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본고의 목적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종속이론을 어떠한 점에서, 왜 비판하

1)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서는 멕시코 공산당 제 9차 당대회 테제 15를 참조할 것. “...종속이론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도 左派의 분석과 이론에 침투하여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과거지사가 아니라 오늘의 급무인 소이다.”(Munck, 1981에서 재인용).

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²⁾ 여기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이용될 것이다.

자신의 이론적 입장이 어떠한 간에 사회과학도라면 이미 국제적으로 광범히 논의되고 있는 이 이론적 이슈에 대해 盲目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종속이론의 비판적 수용의 문제가 제기되고(林玄鎭, 1983) 한국사회에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에서³⁾ 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무의미하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본고에서 마르크스주의측에서의 비판을 고찰하려 함은 한국에서도 이미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종속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수준의 低位性에서 비롯되는,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이론,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帝國主義理論을 기본적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시정하는 데 다소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기도 하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정통”(orthodoxy)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ukács(1979)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정통성은 오직 연구방법에만 관련된 것이나,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도 그것의 증거는 역시 “古典作家”(classic writer)의 저작에서 사용된 방법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 사용된 방법 자체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엔 퇴케이(1977)에서와 같이 古典의 문장의 독자적 추종이 유일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Neo-Marxism에 대칭되는 Classic-Marxism을 대략 정통이론이라 보기로 한다. 불만족스럽지만 본고의 의도에 별 문제가 없는 규정이 될 것이다.

2. 從屬理論의 主要命題

마르크스주의진영의 비판을 고찰하기 앞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종속이

- 2)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 8, Nos. 3 & 4 (Summer and Fall, 1981)는 Dependency and Marxism 이란 題下에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진영의 비판적 입장의 논문들과 변호론적 입장의 논문들은 실고 있다. 본고는 이들 논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3) 종속적 발전모델을 한국에 적용한 Lim (1982)이 대표적 예이며, 그 외에도 종속이론의 주요 개념 및 시각들이 최근 적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종속이론 관계문헌 목록으로는 林玄鎭(1983 : 364) 참조.

론의 주요명제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종속이론은 하나의 통합된 이론이나 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입장을 지닌 종속이론가, 개인들 및 집단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적인 기반은 低發展이 저발전국에 外的인(external)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Angotti, 1981), 즉 저발전국의 발전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관건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 특정국가의 内部的 특성이 아니라 國際體制의 구조, 특히 經濟構造라는 假定(Smith, 1979)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속이론의 내용을 몇 가지 명제로 요약한다는 것은 실로 곤란한 일이나 여기서는 Chilcote(1974)의 종속이론의 모델분류⁴⁾를 간략히 소개하고 연후에 그러한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요 명제들을 보기로 한다.

Chilcote(1974)는 從屬(dependency)의 네 가지 주요모델로서 “低發展의 發展” 모델, “新從屬” 命題, “從屬的 發展” 모델, “古典的 帝國主義이론의 再構成으로서의 종속” 모델을 든다.⁵⁾

a. “低發展의 發展” 모델: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명제는 Frank(1966; 1967)에 의해 가장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는 中心國家, 中心地域이 經濟的 衛星地域을 착취, 수탈하는 수단으로서 封建制와 前資本制의 形式보다는 商業的 獨占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는 世界的 水準에서 발전하는 中心(metropolis)과 저발전된 주변(periphery)을 산출하며, 동일한 과정이 一國 내에서도 중심지역과 위성지역 간에 발전된다는 논리이다. Frank의 이론적 시각을 Laclau(1971)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은 연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발전국은 저발전된 적이 없다; 둘째, 저발전은 중심과 주변 간의 관계의 歷史的 產物이다; 셋째, 二重經濟論은 거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저발전세계에 효율적으로 완전히 침투하였다; 넷째, 중심-주변관계는 일국 내에서도 일어난다; 다섯째, 주변의 발전은 종속적 지위에 의해 제약되며, 주변은 중심과의 연계가 약화되었을 때에만 가장 큰 성장을 보인다.

b. “新從屬” 命題: 이 명제는 dos Santos(1970)에 의해 대표되며 Quijano

4) 이 외에도 정치적 행동에 관한 시각은 기준으로 한 O'Brien (1975)의 분류, 전략적, 지적 전통에 따른 Bath and James (1976)의 분류, 전략적 노선에 따른 Angotti (1981)의 분류를 참조.

5) 여기에 Chilcote의 이 논문이 쓰여진 이후에 전개된 “여러 종속이론들의 일반화된 형태로서의 Wallerstein류의 세계체제이론”(林玄鎮, 1983: 363)이 첨가될 수도 있다.

(1972) 등에 의해 세련화된 것으로서 전통적인 제국주의론의 사고를 라틴아메리카제국의 내부적 상황에 연결시키고자 한다. 요컨대 식민지적 종속과 19세기말에 정착된 금융·산업적 종속에 이어 2차대전 이후엔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기초한 새로운 종속이 출현했다는 것이다(dos Santos는 이를 技術·産業的 從屬 technological industrial dependency이라 부른다). 산업발전은 자본재의 수입을 가능케 하는 수출에 의존한다. 그러나 수출은 보통寡頭制에 의해 지배되는 전통적 부문과 연결되어 있고, 이 과두제는 종종 외국자본에 매어져 있으며, 수출상품의 판매는 외국자본의 통제하에 있다. 산업발전은 國際收支의 변동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바, 종속국가에서 국제수지는 고도로 獨占化된 國際市場, 외국자본의 이윤보장, 외국자본 및 원조에의 의존 등에 의해 종종 적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종속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제약을 부과한다.

c. 從屬的 發展 모델 : 종속적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주로 Cardoso(1972; 1973)에 의해 전개되기 시작했다. Cardoso는 현대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레닌의 초기의 관념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자본축적은 金融的 支配보다는 企業的 統制의 결과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원료,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은 지역 및 국가자본, 국내의 私的 자본, 독점국채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통제하에 있지만) 獨占資本主義와 發展은 모순적 관계에 있지 않다. 종속적 자본주의적 발전은 제 3세계에서 독점주의적 팽창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고, 이 발전은 제약, 제한되고 上層階級志向的인 시장과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Cardoso, 1973). 이러한 분석에서 Cardoso(1972)는, 제국주의가 피지배국의 이해와 반응을 통합시킨다는 나이브한 가정과, 저발전의 발전, 종속경제의 力動性的의 결여 등의 관념을 비판한다. 보다 최근 Evans(1979)는 역시 Brazil을 모델로 하여 多國籍企業, 國家, 國內資本의 3자동맹 속에서의 종속적 발전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종속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점이 Cardoso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d. “古典的 帝國主義論의 再構成”으로서의 從屬모델 : 이미 Lenin(1974)이 제국주의를 종속과 연관시킨 바 있지만 최근의 綜合은 이 연관을 세련시켜가고 있다. Quijano(1972)는 帝國主義的 支配를 階級鬭爭과 연결시키려 한

다. 최근에 올수록 보다 많은 종속이론가들이 저발전의 설명에 제국주의의 틀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예컨대 Fernandes(1979: xi)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종속이론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자본주의세계의 주변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영향에 관련된 일군의 가설과 설명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제국주의이론이다.”

그러나 從屬視角에서 제국주의론을 가장 멀리 전개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학자가 아닌 Amin(1976; 1977; 1980)이다. 그의 이론은 주변부의 입장에서 제국주의를 해명하려는 입장의 것으로서 週邊資本主義論(theory of peripheral capitalism)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에서만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다. 특히 종속이론은 미국의 社會科學界에서 대량으로 “소비”되고(Cardoso, 1977) 변용되고 있으며, Wallerstein류의 世界體制論的 “종합”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본래 折衷的 性格이 강한 종속이론은 世界體制모델 뿐만 아니라 生産樣式 및 社會構成體 分析 등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理論的 色調를 띠고 있는 종속이론에 공통적인 기본명제를 들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곤란한 일이나, 본고에서는 Angotti(1981)를 따라 대부분의 종속이론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네 가지 이론적 시각을 二重經濟論批判, 中心—週邊理論, 不平等交換論,⁶⁾ 從屬의 부르조아지를 들기로 한다.⁷⁾

a. 二重經濟論批判: 종속이론의 모든 학파는 發展에의 중요한 장애는 “근대적” 서구자본주의적 경제의 諸特性을 결하고 있다는 저발전국의 “전통적” 후진적 부분의 내재적인 사회경제적 제속성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부르조아 사회과학에 의해 제창된 관념을 반박한다. 이중경제론에서는 全社會史는 하나의 理想型(전통적인 저발전사회)에서 다른 하나의 이념형(근대적인 발전된 사회)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으로서 설명된다. 이중경제론(또는 擴散主義모델)에 대한 가장 과격한 비판은 Frank(1966; 1967)에 의해 주어진다. 이 비

6) unequal exchange, échange inégal을 中川(1981)에 따라 본고에서는 不平等交換과 구분되는 不平等交換으로 번역한다.

7) Wallerstein의 世界體制論은 마르크스주의이론과는 너무도 무연한 것이고 전형적인 종속이론의 조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컨대 Frank(1978; 1979)의 세계체제모델과 비교해 보라] 본고에서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上記의 네 가지 시각 중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중심—주변이론과 불평등교환론 뿐인데 후자의 경우에도 그의 것은 價値法則없는 교환론이다. 그의 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으로서 Aronowitz(1981)를 참조하라.

판은 종속이론의 가장 진보적인 면모로서, 국내적 억압과 저발전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한편 이것의 경직화는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에 자극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종속이론의 전유물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⁸⁾

b. 中心—週邊이론 : 두번째의 주요한 관념은 세계가 “중심”과 “주변”으로 분할되어 있고, 이 구분은 가장 일반화된 구분이라는 것이다. 용어는 논자에 따라 달리 사용되나 기본적인 접근은 동일하다.⁹⁾ 중심은 풍요한 선진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저발전된 빈곤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국의 내부구조를 기술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國內植民地命題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내식민지 개념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서 대개 포기되고 一國內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위성지역) 간의 종속모델로 대체되었다.

中心—週邊理論은 바로 양자 간의 交換關係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不平等交換論으로 이어진다.

c. 不平等交換論 : 저발전이 世界市場에서의 주변국의 불리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Emmanuel(1972)의 불평등교환론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선명히 정립된다. 그것은 의견상 리카도적 比較優位論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은 넓게는 중심국의 발전이 주변국으로부터의 불평등교환에 의한 剩餘移轉(transfer of surplus)에 의존하고, 그 결과 주변국은 저발전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많은 종속이론가들의 논리로 이어진다. 이 이론의 주요한 함축은 주변국의 노동 및 자본이 생산된 가치에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貿易收支와 賃金收支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 從屬的 부르조아지 : 대부분의 종속이론가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계급범주를 사용하는 자들은 “주변”의 부르조아지를 외부세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진보적 반제국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

8) 예컨대 Marx의 中國·印度論, 植民地論에 전개된 이론적 단서를 전개시켜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中國의 植民地化, 日本의 近代化가 동일한 세계사적 과정의 양면임을 지적하고, 서구근대를 기준으로 하는 近代主義의 아시아觀과 그 世界史像의 변혁을 주장하는 田中正俊(1973)을 보라.

9) 모든 종속이론 및 세계체제이론이 현대사회과학의 구조주의론 및 체제이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 및 체제개념을 깔고 있음에 주목할 것. 이와 대칭되는 개념이 마르크스주의의 總體性(totality) 概念이다.

것은 후진국의 부르조아혁명 단계에서의 부르조아지의 역할에 대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이론의 평가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추론은, “중심”의 노동자계급은 객관적, 주관적으로 “주변”의 대중과 연합되어 있기 보다는 자국내의 부르조아지와 통합되어 있고 그리하여 反帝國主義戰線의 일환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가들 중에서도 일부 右派에 속하는 자들은 탈종속전략 속에서의 민족부르조아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다양한 종속이론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명제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특정 이론가가 아닌 종속이론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각 이론가들의 특수한 이론에 대한 검토는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종속이론의 주요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부터의 비판을 고찰할 것이다. 역시 각 이론가 및 이론의 개별적 특수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지 않을 수 없다.

3. 從屬理論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批判

종속이론은 巨視的 理論이고, 이론의 출발 자체가 특정한 실천적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결코 經濟理論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歷史·社會的 理論이며, 그에 照應하는 政治的 路線을 함축하고 있다. 즉 가치중립이 아니라 일정한 價値를 표방하는 이론인 것이다. 어떠한 이론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되어 있는 구성부분들을 떼어서 고찰하는 데는 다소의 恣意가 개여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특정한 가치와 목표를 지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과 투쟁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론의 세부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전체이론의 목표 및 그것의 달성을 위한 실천적 전략이다. 따라서 투쟁은 순수한 이론적 투쟁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으로 귀결된다. 본고에서는 마르크스주의진영의 비판을 편의상 認識論上的 問題, 歷史觀 問題, 經濟理論上的 問題, 社會階級分析의 問題, 政治的 路線의 問題로 나누어 개괄하되 되도록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보도록 하겠다.

1) 認識論上的 問題

주지하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인식론은 辯證法的 唯物論으로 불린다. “변증법적”이라 함은 “形而上學的” 내지 “機械論的”인 것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唯物論”은 “觀念論”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유물론은 原理의 문제로, 변증법은 方法의 문제로 이해된다. 이것이 歷史에 적용될 때 이른바 史的 唯物論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歷史·社會理論이 된다.

다른 모든 “부르조아”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속이론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서 그것의 “관념론적” 성격 및 “비변증법적”=“形而上學的” 성격을 비판한다.¹⁰⁾ 예컨대 Angotti(1981)는 종속이론의 기본적인 方法論的 誤謬를 그것이 관념론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며, 특히 量的 變化와 質的 變化 간의 구분을 흐리는 경향을 비판한다. 관념론자들의 세계에서는, 사물을 시간 속에서 단순히 점진적으로 변형될 뿐 그 내적 본질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혁명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도, 가져올 수도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예컨대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이나 獨立, 또는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변화과정을 돕는) 改良主義路線이거나(어느 것도 진정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와 종속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悲觀主義이다. 요컨대 관념론적 방법은 革命的 過程에서의 諸段階, 生産樣式에서의 변화, 支配的 生産樣式的 발전에 있어서의 諸段階, 階級鬭爭과 같은 世界史的 過程을 흐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Angotti가 “관념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非辯證法的的”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이 될 것이다. 관념론적 성격=反唯物論的의 성격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유물론과 관념론의 구분은 意識과 存在, 또는 精神과 物質에서 어느 것에 우위를 두느냐에 주어지는 바, 유물론의 사회이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의식에 대한 물질적 특히 경제적 제조건의 절대적 규정력 및 상부구조에 대한 하부구조의 우위성이다. 이것이 무시될 때 그러한 이론은 관념론의 혐의와 비판을 사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속이론에서 말하는 從屬의 구조가 經濟的 諸條件과 연결되지 못하는 까닭에 支配가 상부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Angotti,

10) 변증법은 革命的 代數學이라는 게르첸의 아포리즘이 변증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집착을 설명해 줄 것이다.

1981), 따라서 그에 대한 극복전략에 있어서도 主意論(voluntarism)에 빠지게 된다고(Henfrey, 1981) 비판한다.¹¹⁾ 主意論이 비판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연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의식, 의지를 초월하는 法則性이 관철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있어 역사 속에서 우연은 단지 인식되지 않은 필연에 불과한 것이다.¹²⁾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물론 및 변증법의 문제에 대하여 적어도 이론상으로 타협이나 용인을 거부하는 것은 이론의 철학적 기초에서의 “오류”가 經濟·社會·政治的 理論 및 實踐戰略에 오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이다. 실령 유물론자로 자처하더라도 변증법적 방법을 상실하면 관념론자가 되고 경제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¹³⁾

2) 歷史觀의 問題

歷史觀의 문제는 인식론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종속이론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生産樣式的 繼起的 進歩의 法則, 이른바 五段階法則으로 대변되는 역사발전의 合法則性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종속이론이 당초 그러한 “교조적” 이론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일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역사이론을 비판함은 자연스런 일이다. 예컨대 종속이론가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역사이론(社會構成體 進歩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Amin(1976; 1980)의 경우 역사 속에서 필연적인 것은 모든 형태의 前資本主義的 社會構成體가 資本主義로 移行한다는 것 뿐이며,

- 11) 물론 이 비판이 모든 종속이론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종속이론가들 사이의 차이는 다만 정도차에 불과한 것이다.
- 12)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한 Hegel의 이러한 定立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에서는 歷史와 個人的 관계도 설명한다. 플레하노프(1973) 참조. 이것은 물론 결정론이나 Hoffman(1975)은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이 기계론적 개념이 아닌 변증법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결정론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한다.
- 13) 예컨대 진정한 사적 유물론자로 자처하는 Amin의 이론이 혁명적 내용을 박탈당하고 경제주의화한 맑스주의라는 메이야수(1977: 283)의 논평을 보라. 그러나 이것은 Amin의 불평등교환에 의한 착취들의 비판으로서의 부분적 타당성을 가지나 초기의 입장을 제외한 Amin의 전 이론체계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는 계급투쟁을 자본축적의 논리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그로부터 제국주의를 도출하는 바 이러한 정치주의적 편향(Macussen and Torp, 1982: 142), 내지 관념론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마르크스주의적 견지에서는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의 段階的인 移行의 進路라는 것은 부정되고 있고,¹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도 결코 歷史的 必然이 아니라, 人間(주로 종속제국의 프롤레타리아트, 농민)의 意識的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역사 속에서의 이른 바 “합법칙성”,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역사의 필연적 진로에 대한 부정은 곧 社會主義到來의 必然性的의 否定으로서¹⁵⁾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 내부에 있어서도 역사 발전의 “단일한 길”, “다수의 길”에 대하여 입장이 나뉘며, 이것은 소련의 학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資本主義로의 移行 및 社會主義로의 移行의 必然性만은 고수되지 않을 수 없다.¹⁶⁾

Amin을 제외한 다른 종속이론가들은 포괄적인 역사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종속이론가들은 19세기로부터 분석을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지역의 존재를 所與의 것으로 보고 뒤로 소급하여 발전, 저발전의 기원을 검토하지 않는, 즉 과학적인 자본주의의 不均等發展理論을 결여하고 있는 反歷史的인 방법으로 보며, 설령 마르크스주의적 제법주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비판된다(Weeks, 1981). 그들은 종속, 저발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현상을 기술할 뿐¹⁷⁾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며(Chinchilla and Dietz, 1981), 관념론적 사고의 산물임을 주장한다(Johnson, 1981). 라틴아메리카가 처음(16세기)부터 자본주의였다고 보는 Frank의 이론에 대한 Laclau(1971)의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종속이론의 이러한 비역사적 성격은 거의 모든 종속이론가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은 종속이론을 “소비”하는 미국학자들의 연구에서, 특히 종속이론의 명

14) 따라서 Amin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의 하나는 그의 이론에는 전자본주의 사회구성에 대한 역사이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梶村秀樹(1981) 참조.

15) 예컨대 Amin(1975)의 음울한 전망을 상기하라.

16) 繼起的發展의 법칙에 대한 최근의 비교적 유연한 이론으로서 Semenov(1980)를 참조하라. 어떤 생산양식도 모든 특정 사회들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으며 어떤 특정 사회도 모든 생산양식을 경과하지는 않으나,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생산양식의 발전은 결국 계기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17) O'Brien(1975)은 종속이론이 종속국들은 자율적 성장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나라이며, 그 능력의 결여는 그 나라들의 구조가 종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순환론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들을 경험적 방법으로 실증 또는 반증하려는 시도들(Meyer and Hannan, 1979)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한편 종속이론의 “관념론적”, “비변증법적” 본성은 역사 속에서의 변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이론에서 이것은 Baran, Sweezy의 개념인 “經濟剩餘”의 이전에 의한 저발전의 설명으로 나타난다. 종속이라는 현상의 근원을 내재적 요소인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고 외재적인 요소인 국제적 교환관계에서 찾는¹⁸⁾ 종속이론의 이른바 “비변증법적 오류”의 근원은 Dobb-Sweezy 논쟁에서의 Sweezy 진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ilton et al., 1976 참조). 이것은 초기의 이론인 Frank(1966; 1967) 등의 정체명제(stagnation thesis) 또는 저발전명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그는 발전, 저 발전을 내적인 생산제력의 전개,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침투 및 그에 의한 前資本制의 諸樣式의 구축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외적인 교환관계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다.¹⁹⁾ Amin(1976; 1980)의 前資本制의 社會構成體分析에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그는 역사발전의 단계설정에 있어서 貢納制 生産樣式(tributary mode of production)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념자체가 생산과정에 대한 교환과정의 우위, 즉 외재적 요인의 내재적 요인에 대한 우위를 함축하는 것이다.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의 이러한 “오류”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철학적 입장, 즉 관념론적, 비변증법적 성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는 바로 政治的 路線 및 戰略, 이데올로기에서의 문제로 이어진다.

3) 經濟理論上的의 問題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종속이론 일반이 갖는 경제이론상의 문제는 生産局面에 대한 流通局面의 강조, 國內·國際市場에 대한 과도한 강조, 부

18) 자본제적 관계의 본질을 생산관계에서 구할 때와 교환관계에서 구할 때 각각 나타나는 世界像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의 개론적 수준의 문제이다. Marx의 다음과 같은 풍자를 참조하라. “이 영역은...사실상 인간의 천부적 권리의 낙원이다. 거기서는 오직 <자유>, <평등>, <所有> 그리고 <벤담 Bentham>만이 지배한다.”(Hunt, 1982 : 305에서 재인용).

19) 이 점은 Frank의 후기의 저작(1978; 1979)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당한 國際擄取論, 生産樣式分析의 결여, “科學的” 帝國主義理論의 결여 등으로 나타난다(Chilcote, 1981; Johnson, 1981; Howe, 1981; Weeks, 1981; Angotti, 1981; Laclau, 1977; Fernández and Ocampo, 1974). 이러한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外在的 要因에 대한 과도한 강조, 生産의 社會的 關係의 이해를 결여한 經濟主義로 비판된다.

生産관계에 보다 교환관계에 重點이 주어질 때 國際交易構造 속에서의 위치가 일국의 발전 또는 저발전의 설명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문제가 강조된다. 저발전의 원인을 저발전국에서 발전국으로의 경제 잉여의 이전에 따른 저발전국에서의 資本蓄積의 지해에서 찾는 종속이론에서 잉여이전의 메카니즘이 경제외적 수탈에 이어 不平等交換이다. 이러한 Frank류의 “경제잉여수탈에 의한 저발전”명제는 國際價值論 없는 國際擄取論이라 비판되고 있거니와(中川, 1981), 經濟剩餘라는 개념 자체가 마르크스의 價值法則이 獨占段階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Baran과 Sweezy(1966)의 개념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진영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을 적용하여 국제교역관계 속에서의 가치이전을 규명하려는 Emmanuel(1972), Amin(1976; 1977) 등의 시도가 있는 바,²⁰⁾ 國際生産價格論에 기초한 이들의 不平等交換論은 이미 이론적으로 비판이 끝난 단계이지만,²¹⁾ 설령 올바르게 구성된 불평등교환론이라 할지라도 불평등교환을 低發展의 原因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이다(Mandel, 1975: 352~353). 이들에게 있어 “불평등교환”은 단지 “교환”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서, 그로써는 不平等한 諸關係의 확대재생산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들의 불평등교환론은 각국 내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사실이나 지배계급들 간의 국제적 연계라는 현상 및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은폐하게 되고 生産關係의 근본적 변혁이 없이도 저 발전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봄으로써 정치노선에 있어서는 改良主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Bettelheim, 1972).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통과정에 대한 과도한 강조, 또는 유통국면

20) 國際價值論爭에는 프랑스파, 서독파, 영국파, 일본파 등으로 분류되는 많은 논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나 종속이론가중에선 이 두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다.

21) 많은 사람의 비판이 있지만 Bettelheim(1972), Mandel(1975: 343~376), 中川(1981)에서 볼 수 있는 비판으로 족할 것이다.

의 고립적 고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유통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생산관계이다. 즉 交換, 交易이 불평등교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世界階級構造의 位階的 性格을 창조한다. 生産樣式, 社會構成體分析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생산양식분석의 결여²³⁾에 대해서는 Frank에 대한 Laclau(1971)의 비판이 고전적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사회를 균질적인 자본주의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생산양식을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통합으로 보지 않고 國際的 經濟關係로 보는, 즉 생산양식을 세계경제 자체로 보는 오류라는 것이다.²⁴⁾

중속이론가들은 농업에 있어서의 前資本制的, 封建的으로 보이는 생산관계는 실상은 전자본제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견상의 전자본제적 노동관계도 단지 주변에서 자본제적 생산양식에 의해 사용되는 勞動支配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라는 것이다(Chinchila and Dietz, 1981).²⁵⁾

중속이론은 生産樣式의 變化의 의미를 무시한다고 비판된다(Angotti, 1981). 중속이론가들은 자본주의발전의 諸段階의 구분을 무시하며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착취사회의 하나의 과도적 형태로 그리는 것이다. 한편 “중속적 자본주의”라는 범주 자체가 제 3세계에 非從屬的 資本主義, 근로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자본주의가 있음을 함축한다는 비판, 그리고 중속이론은 제국주의와의 투쟁 없이도 자본주의가 제거될 수 있다는 환상을 산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Angotti, 1981).

이른바 “低發展”은 자본주의적 불균등발전의 地域的 表現이라 볼 수 있다.

22)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산국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Bettelheim에 대한 Angotti(1981)의 비판 참조. 또한 불평등교환은 적어도 저발전을 재 생산하는 기제의 하나로서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丁聲鎮, 1981).

23) 물론 Amin이나 週邊化論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의 결여가 아니라 정통적 분석으로부터의 이탈이 문제이다.

24) 고전적인 一國家社會水準의 분석과 世界體制的 分析의 종합을 위하여 “world mode of production”에 개념을 제창하는 Bergesen(1981)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5) 그러나 생산양식개념이 만병통치약이 아님도 지적되고 있다(Henfrey, 1981; Howe, 1981). 이른 바 “생산양식접합” 분석도 사회구성체 내의 수다한 접합층의 단지 하나에 대한 분석일 뿐이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생산양식개념의 무분별한 적용에 의해 무수한 생산양식을 도출해내는 Long(1977)과 같은 오류도 참조할 것.

이 국제적 불균등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곧 제국주의 이론이다. 從屬理論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에는 國家의 이론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릇된 국가이론을 가지고 있다(Weeks, 1981). 마르크스주의는 資本蓄積理論을 國家들의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世界經濟理論으로 변환시키는 바,²⁶⁾ 정치적 경계를 國家로 만드는 것은 그 경계가 특정한 지배계급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이다.²⁷⁾

제국주의이론이 지배계급 간의 투쟁의 맥락 속에서의 자본축적이론이라면 적절한 국가이론의 결여는 국제적 불균등발전을 설명하려는 종속이론의 시도를 불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적절한 계급분석의 결여 및 또는 계급문제의 “민족문제”로의 대치의 문제로 연결된다(Johnson, 1981; Henfrey, 1981; Weeks, 1981).

4) 社會階級分析의 問題

역사관 및 경제이론상의 “오류”는 바로 계급분석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술했듯이 종속이론에서는 기본적인 대립, 모순을 階級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民族 간의 관계에서 찾는, 그리하여 계급문제를 민족문제로 대치하는 경향이나, “중심부”, “주변부”, 내의 계급관계의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주변부 내부의 계급분석에 있어서도 계급관계 자체보다 부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국주의이론은 a. 선진자본주의제국 내의 지배계급 간의 갈등과 협동, b. 선진자본주의제국의 지배계급과 저발전제국의 지배계급 간의 갈등과 협동, c. 지배계급과 피압박민중들 간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갖춰야 한다(Weeks, 1981). 자본주의적 불균등발전의 근원을 交換 내지 流通의 국면에서 찾는

26) 여기서 분석의 수준(level)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세기적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관계의 규명이 요구되는 바이나,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이론에서는 출발이 계급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단지 기술적 관계이거나 외적인 교환관계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Aronowitz, 1981). 교환관계에서 출발할 때 국제적 계급관계, 착취관계는 모델에서 사상되지 않을 수 없다.

27) “종속적 발전”모델에서 자본축적과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가에 계급으로부터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Evans(1979)의 이론바 “3각동맹”에 있어서 국가는 동맹의 독자적인 주체중의 하나이다.

종속이론이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이론이 요구하는 “科學的”인 국제적 계급투쟁의 이론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²⁸⁾

“그릇된” 경제이론(예컨대 외적 교환관계에의 부당히 과다한 비중부여, “잉여가치”를 “잉여생산물”로 대치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팽창을 단순히 잉여상품을 처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Sweezy류의 오류²⁹⁾의 답습 등 그릇된 제국주의이론,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을 왜곡·수정하는 不平等交換論, 생산양식분석의 결여 내지 부정적성 등)에 입각한 종속이론은 客觀的이고 特定化된 계급투쟁의 분석 대신에 사회를 도식적으로 層化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Angotti, 1981).³⁰⁾

종속이론의 “右派”진영에서는 계급투쟁을 民族 간의 투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계급투쟁이론을 폐기하는가 하면, 반면 “極左”진영에서는 民族間的의 모순을 국제적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보지를 못한다. 극좌진영에서는 주변의 모든 계급이 “從屬的”이며 중심의 모든 계급이 “支配的”이라 본다. 따라서 그것은 反帝戰線에서의 民族資本家の 일정한 독립적 역할을 무시하며,³¹⁾ 선진자본주의제국 내에서의 계급투쟁을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Angotti, 1981). “저개발세계가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안병직, 장시원, 1983: 434)는 비판도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다.

정통마르크스주의에서는 스탈린의 민족문제론의 기본관점, 즉 민족문제에 “부르조아의 문제”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속이론이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간주됨은 자연스런 일이다.

Henfrey(1981)는 Cardoso(1972; 1973)와 Cardoso and Faletto(1979)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Cardoso의 소위 從屬的 發展모델,

28) 종속이론에서는 특히 중심부국이 내부에서의 계급투쟁의 의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국주의이론과 관련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내의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Szymanski(1979)를 참조할 것.

29) 제 2 차대전 이후의 장기변영을 합리화시키려고 만들어진 Sweezy, Baran의 과소소비론이 장기변영의 종결과 더불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김수행(1983)의 논평을 참조할 것.

30) 예컨대 Amin(1980, 제 6 장)의 세계계급구성을 볼 것.

31) 예컨대 Frank(1967)에 있어서는 주변부의 국내자본가는 물론 부르조아지일 뿐이다.

또는 連合的 發展모델³²⁾에서는 주요한 모순은 계급 간의 모순이라기보다는 계급 내의 모순이다. 종속적 발전은 각 계급을 역동적 부분과 연결된 國際化된 부분과 이 부분의 資源獨占에 의해 週邊化된 다른 부분(marginalized fraction)으로 분화시킨다는 것으로 그는 주변화된 부분을 재통합시킨다는 의미에서의 “民族問題”를 제기하는 改良主義에 빠진다. 한편 Cardoso와 Falletto의 종속적 사회구성체 내에서의 정치적 수준의 우위는 특수적 경제 및 계급관계의 함수가 아니라 선형적으로 가정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Weber적 관념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정치적 영역을 확정적인(determinate) 계급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집단과 세력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³³⁾ 이것이 주변부 내의 계급분석을 가장 깊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종속적 발전”이론³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진영의 평가이다.

5) 政治的 路線의 問題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 간의 이론투쟁은 결국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다. 그것은 실천의 장에서는 정치적 노선의 투쟁으로 귀결된다. 이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실천을 위한 무장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政治的 實踐이 문제의 핵심이 되면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계급투쟁의 궁극의 장은 정치무대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나 종속이론이나 실천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³⁵⁾ 그러나 양자가 그리는 사회주의의 내용이 같을 수 없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전략이 같을 수 없다. 이 노선의 차이는 양진영의 이론상의 諸對立의 총합적 귀결로서 부상한다. 이때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

32) 이론바 연합적, 종속적 발전이란 국제자본주의의 동태에 일국경제를 종속시키고, 국제화된 부르조아, 군부, 기술관료층, 중간계급의 일정한 타협 위에서 그 역동성을 유지시키는 체제이다(Cardoso, 1973 : 163).

33) Quijano(1979)의 주변화론도 참조하라. 여기서도 강조는 계급간의 관계에 보다 부문 간의 관계에 주어진다.

34) 물론 Evans(1979)의 “3각동맹”론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의 분석은 계급분석이라기보다는 지배엘리트 분석이다.

35) 물론 종속이론의 보수주의적 진영은 논외다. “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온건주의자들이나 급진주의자들이 있어 이상적 국가발전의 기본 울타리는 사회경제적 개혁 내지는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의 구현에 있다”(林玄鎮, 1983 : 375).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는 일정한 유보가 따라야 될 것이다.

서 보다 격렬한 노선투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속이론의 온건파나 보수파가 아니라 급진파이다. 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부르조아진영”으로 쉽게 몰아버릴 수 있으나 후자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명분이나 목표를 놓고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로 종속이론의 이 좌파진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에 국한하여 살펴보겠다.

마르크스주의측에서의 비판은 종속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주의 실현을 향한 전략이 主觀的 意圖과 무관하게 사회주의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하는 객관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집중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革命的 過程의 段階區分의 無視, 현대세계의 주요 모순의 所在에 대한 그릇된 파악, 現實的으로 존재하는 社會主義體制의 歷史的 意味를 無視하는 空想主義로 제기된다.

혁명적 과정의 단계구분의 문제는 이른바 民族的 民主主義革命(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의 評價의 문제로 나타난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이론에서는 혁명과정은 民族的 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종속이론가들 중 改良主義路線에서는 자들은 前者의 중요성을 과도히 강조하고 반면 極左路線에서는 그것의 필요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Angotti, 1981). 예컨대 Frank의 주장과 같이 전세계가 자본주의체제이고 民族부르조아지와 帝國主義 間に 矛盾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일 적합한 투쟁은 國際부르조아지와 國際프롤레타리아트 간의 투쟁이 되는 바, 이것은 지난 30년 간의 모든 社會主義革命이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民族的 民主主義鬭爭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노선이라는 것이다(Fernández and Ocampo, 1974). 한편 혁명적 과정의 단계구분을 무시하는 이러한 비현실적 공상주의는 즉각적 게릴라 무장투쟁을 요구하는 이른바 “foco theory”로 대표되는 極左冒險主義에 빠지기 쉽게 된다.³⁶⁾

종속이론은 현대의 주된 모순은 帝國主義와 社會主義 간의 모순으로 보지 않고 支配的 勢力과 從屬勢力 간의 모순으로 본다고 비판된다. 그리고 이 “支配”는 多國籍企業이나 金融機構, 또는 技術構造(technostructure)의 결과로 둘러지고 제국주의에 둘러질 때도 對外政策에 둘러진다. 즉 支配를 上部構造的 要素로 본다는 것이다(Angotti, 1981).

또 종속이론은 하나의 獨自的 生産樣式으로서의 社會主義의 등장을 고려

36) foco theory 및 그것의 실패에 대해서는 Chaliand(1976)을 참조.

하지 않고, 사회주의체계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종속은 항구적인 현상인 것으로 본다고 비판된다. 종속이론가들 중 社會主義者로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발전에 있어서의 諸段階를 무시하듯 공산주의의 단계 구분³⁷⁾을 무시하고 혁명 이후의 사회를 最高段階의 공산주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들 사회를 또 다른 搾取形態로 보거나 또는 자본주의의 주요한 경제적 특징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過渡的 構成體로 보며, 그것의 정치적 귀결은 悲觀主義와 敗北主義라는 것이다(Anogotti).³⁸⁾

요컨대 종속이론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진영의 비판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獨占資本主義와 帝國主義의 이데올로기적 방패가 되고 사회주의혁명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4. 結 論

지금까지 정통마르크스주의진영에서 종속이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점에서 비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의도 중의 하나는 兩理論 간의 차이를 엄격히 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는 보다 선명히 부각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차이는 마르크스주의측에서 論爭的 意圖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없지도 않을 것이나 여하간 이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哲學的 立場으로 부터 政治的 路線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은 서로 容認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종속이론은 설령 그것이 상당부분 마르크스주의이론의 諸範疇와 理論的 要素들을 수용하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挑戰이다. 정통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종속이론은 “改良主義의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이거나,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종속이론가의 경우 그것은 기껏해야 似而非마르크스주의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는 비과학적인 이론으로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理論的 誤謬는

37) 마르크스주의 내에서의 이 단계 구분에 대해서는 Lock(1977)를 참조. Hoffman(1975)은 사회주의를 계급 및 착취는 폐지되었지만 불평등은 아직 잔존하는 단계로 본다.

38) 이것은 소비에트·동구체제를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는 다수의 “자칭 사회주의자”에 대한 공식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이기도 하다.

實踐上의 誤謬, 즉 사회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路線과 戰略을 초래함으로써 종속이론가들 자신의 主觀的 意圖과 관계없이 중국적으로 “敵”을 이롭게 할 뿐이다. 종속이론 중 특히 그 급진적 진영은 그 目標과 名分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實踐에 더욱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대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측의 이러한 평가태도와 마르크스주의이론에 대한 종속이론측의 평가태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즉 자신만이 唯一한 科學的 社會主義理論이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측에서는 종속이론이 투쟁해야 할 대상이지만 종속이론측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수정, 비판의 대상이지 그렇게 격렬한 투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³⁹⁾

만약 마르크스주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한다면 그것과 종속이론 간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고, 더우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물론 그 차이를 식별할 가치중립적, 객관적 근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종속이론 중에서 마르크스주의이론에 상대적으로 가장 접근해 있는 진영조차도 마르크스주의진영으로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토록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을진대, 제삼자의 입장에서조차도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간의 차이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우기 양자에 대한 명백한 無知에서 비롯되는, 양자를 기본적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는 양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인식에 의하여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 수 행

1983 “현대학문의 세 경향: 경제학분야”, 『현상과 인식』 제 7 권 2호.

안병직, 장시원 편.

1983 『경제학개론』, 도서출판 풀빛.

林 玄 鎭

1983 “從屬理論의 可能性과 限界: 韓國의 發展研究와 관련하여”, 李萬甲教授 華甲紀念論叢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汎文社.

39) 이러한 현상은 마르크스주의와 유사이론 간의 투쟁 및 마르크스주의진영 내부에서의 이론적 분과투쟁의 역사에서 통상 보아오는 바이다.

丁 聲 鎮

1981 “國際的 不等價交換에 관한 一考察”, 서울大 經濟學科 碩士學位論文.

Amin, S.

1975 “Toward a Structural Crisis of World Capitalism”, *Socialist Review* 5.

1976 *Unequal Development*, N.Y., MRP.

1977 *Imperialism and Unequal Development*, N.Y., MRP.

1980 *Class and Nation*, N.Y., MRP.

Angotti, T.

1981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Dependency Theo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Aronowitz, S.

1981 “A Metatheoretical Critique of Immanuel Wallerstein's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0.

Baran, P. and P. Sweezy

1966 *Monopoly Capital*, N.Y., MPR.

Bath, C.R. and D.D. James

1976 “Dependency Analysis of Latin America: Some Criticism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6.

Bergesen, A.

1981 “Book Review: World Accumulation; Dependent Accumulation and Underdevelopment” (both by A.G. Frank), *Theory and Society* 10.

Bettelheim, C.

1972 “Theoretical Comments” to Emmanuel, *Unequal Exchange* (Appendix I).

Cardoso, F.H.

1972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74 (July-August).

1973 “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n A. Stepan (ed.), *Authoritarian Brazi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The Consumption of Dependency Theory in the United State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XIII (3).

Cardoso, F.H. and E. Fa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riginal 1969).

Chaliand, G.

1976 *Revolution in the Third World*, N.Y., Penguin Books.

Chilcote, R.H.

1974 “Dependency: A Critical Synthesis of the Literatur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 (1).

- 1981 "Issues of Theory in Dependency and Marxism,"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Chinchila, N.S. and J.L. Dietz
- 1981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Emmanuel, A.
- 1972 *Unequal Exchange: A Study of the Imperialism of Trade*, N.Y., MRP.
- Evans, P.
-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s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rnandes, F.
- 1979 "Foreword" to Peter Evans, *Dependent Development*.
- Fernández, R.A., and J.F. Ocampo
- 1974 "The Latin American Revolution: A Theory of Imperialism, Not Dependenc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 (1).
- Frank, A.G.
- 1966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Monthly Review* XVIII (September).
- 1967 *Capitalism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N.Y., MRP.
- 1978 *World Accumulation, 1492—1789*, N.Y., MRP.
- 1979 *Dependent Accumulation and Underdevelopment*, N.Y., MRP.
- Henfrey, C.
- 1981 "Dependency, Modes of Production, and the Class Analysis of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Hilton, R. et al.
- 1976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s.
- Hoffman, J.
- 1975 *Marxism and the Theory of Praxis*, N.Y., International Publishers.
- Howe, G.N.
- 1981 "Dependency Theory, Imperi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rplus Value on a World Scal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Hunt, E.K.,
- 1982 *History of Economic Thought*, 金成九外 譯, 『經濟思想史』, 도서출판 풀빛.
- Johnson, D.J.
- 1981 "Economism and Determinism in Dependency Theo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Laclau, E.,

- 1971 "Feudalism and Capitalism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67 (May-June).
- Lenin, V.I.,
1974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Moscow, Progress Publishers.
- Lim, H.C.
1982 "Dependent Development in World System: The Case of South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ock, G.
1979 "Introducton" to E. Balibar, *On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London NLB.
- Long, N.
1977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London, Tavistock Publishers.
- Lukács, G.
1979 "Was ist orthodoxer Marxismus?" in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6. Auflage, Darmstadt und Nauwied, Luchterhand.
- Mandel, E.
1975 *Late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s.
- Marcussen, H.S. and J.E. Torp
198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The Prospects for the Third World*, London, Zed Prees.
- Meyer, J.W. and M.T. Hannan (eds.)
1979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World Syste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nck, R.
1981 "Imperialism and Dependency: Recent Debates and Old Dead-End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Muñoz, H. (ed.)
19 *From Dependency to Development: Strategies to Overcome Underdevelopment and Inequality*, Boulder, Colorado, West View Press.
- O'Brien, P.
1975 "A Critique of Latin American Theories of Dependency," in I. Oxaal et al. (eds.), *Beyond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London, RKP.
- Quijano, O.A.
1972 "Imp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Latin America," in J.Cottler et al. (eds.), *Political Relations between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9 "The marginal pole of the economy and marginalized labor force," in H. Wolpe (ed.),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London, RKP.

- Santos, T. dos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y," "중속의 구조", 변형운, 김대환 편역, 『제 3 세계의 경제발전』, 1980, 까치.
- Semenov, Yu. I.,
 1980, "The Theory of Socio-economic Formations and World History," in E. Gellner (ed.), *Soviet and Western Anthropolog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T.
 1979 "The 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 Literature: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World Politics* 31 (2).
- Szymanski, A.
 1979 "Capital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and the Necessity of Imperialism, in R. Quinney (ed.), *Readings for a Critical Sociology*, N.Y., The Dorsey Press.
- Weeks, J.
 1981 "The Differences between Materialist Theory and Dependency Theory and Why They Matter,"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III (3 & 4).
- 테케이, F.,
 1977 (日譯) 『社会構成体論』, 未来社.
- 프레하노프, G.V.
 1973 (日訳) 『歴史における個人の役割』, 岩波書店.
- 메야서, C.,
 1977 (日訳) 『家族制共同体の理論』, 筑摩書房.
- 田中正俊
 1973 『中国近代經濟史研究序説』, 東京大学出版会.
- 梶村秀樹
 1981 "旧植民地社会構成体論", 富岡倍雄, 梶村秀樹編, 『発展途上經濟の研究』, 世界書院.
- 中川信義
 1981 "國際貿易の理論問題", 久保新一, 中川信義編, 『國際貿易論』, 有斐閣.